식물서 느끼는 생명성을 사유하다

정윤영 작가, 'Beyond Summer'
6월 13일~7월 4일, 히든엠갤러리
식물 · 신체 이미지 토대로 형상
생육 연상 이미지 신작 20여 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작품 앞에 선 정윤영 작가.


뿌리를 위한 노래, 100×80.3cm, 2024.

동양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에 접목해 독특한 회화 형식 작품을 발표해온 정윤영 작가가 전시회 'Beyond Summer'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의 생육 과정을 연상시키는 관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신작 회화 20여 점이 공개된다. 한여름 식물의 생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착안, 생명성에 대한 사유를 시각화한 작품들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한 해 중 봄과 가을 사이 위치한 무더운 계절을 의미하지만 정윤영 작가는 전시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여름을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윤영 작가는 "여름이 생명의 계절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생장이 있다면 죽음도 함께이며 생성과 소멸이라는 관계가 보여준다"면서 "역설적 생동감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동국대 미술학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정윤영 작가는 배채법을 통해 비단의 겹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회화 작업을 해왔다. 한국 전통의 회화 기법이 갖는 유려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회화의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딪침으로 인한 새로운 기운이 약동하는 평면 회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그는 "작품의 내용은 자못 심오한 주제인 인간의 고통, 신체의 감각과 기억으로부터 유래했다"면서 "지난 삶에서 마주한 어려움들은 강렬한 생과 죽음에 관한 모순적 감각을 느끼도록 했고 결국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고통의 기억에서 비롯되며 생기 있는 색채와 형태가 고통의 흔적과 공존하는 미묘한 미감을 발견하게 했다"고 말했다.

진정한 삶의 형태에 대해 "그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가면서도 번번이 좌절되고 어긋나고 틈이 생기고 충돌하는 모험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되물은 그는 "불완전한 미지의 삶 속에서 뭔가를 내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한다. 바로 그 경험에서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알려진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쉼 없는 욕망이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로는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질긴 이중적 특성을 지닌 푸르른 초록빛의 식물들. 싱그러운 여름이 보여주는 약동하는 '너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번 전시는 여름의 초입 6월 13일~7월 4일 서울 히든엠갤러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전공으로 학사를, 국민대에서 회화전공으로 석박사를 한 정윤영 작가는 2013년부터 그룹전과 개인전을 꾸준히 열고 있다.

"무산 스님 상생·화합 정신, 예술·사회서 발현"

5월 31일, 제1회 무산대상 시상
문태준 · 박찬욱 · 수녀회 수상
상금 총 3억원…부도 상패 눈길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5월 31일 개최한 제1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문태준 시인, 박찬욱 영화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수행자이자 시조시인 무산 오현 스님(1932~2018)의 예술혼과 화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무산문화대상 첫 수상자로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선정됐다.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3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된 무산문화대상은 각 분야에서 5명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다. 수상자는 문학, 예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됐으며 각 1억원 총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무산 오현 스님의 부도탑을 축소해 제작된 상패가 수여됐다. 상패에는 정호승 시인이 친필로 작성한 각 수상자의 공적이 새겨졌으며 봉정암 진신사리탑 모양을 본떠 만든 순금탑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또 무산 오현 스님이 매직펜으로 그려 남긴 색색깔 사람들이 어깨동무한 모습의 그림을 새겨넣었어 눈길을 끌었다.

문학 부문 수상자 문태준 시인은 "올해는 등단 30년이 되는 해로, 상을 받아 더욱 뜻 깊다"면서 "시인으로서 앞으로 가야할 길을 가늠하고 다른데 눈을 두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제 몫의 일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박찬욱 감독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불교계 큰 어른의 이름을 가진 상을 받을만한 인물인지 돌아보게 됐다"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고통, 비극에 대한 관심을 집요하고 깊이있게 파들어가는 작품을 앞으로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문화 부문 예수의 소화 수녀회는 "종교를 초월한 시상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스님의 고귀한 뜻이 늘 선양되길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산문화대상은 수상 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전 세계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신달자 심사위원장은 "인간의 삶에 활력과 감동을 주는 이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감받는 인물을 선정, 상이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학硏 '불교 의례' 주제 학술회

6월 21~22일, 가평 백련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남수영)가 2024 하계워크숍 및 학술콜로키움을 연다.

6월 21~22일 가평 백련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콜로키움은 불교 의례 문헌 및 의례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여러 불교 의례 문헌 및 불교 의례의 성립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청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콜로키움은 △영산재, 수륙재의 성립(강현찬/ 동국대) △진언집, 작법귀감의 성립(연산 스님/ 동국대) △종교와 의례(류제동/ 서강대)가 발제된다. 이어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의 환영사와 정승석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장,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축사도 준비됐다.

모든 의례에는 성립 배경이 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불교 의례 및 의례 문헌은 남아 있으면서도 그 성립 배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립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힘들어지고, 그 존재의미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수영 회장은 "존재의미가 약화돼 의례 및 문헌이 사라지게 되면 대중들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의례 및 문헌이 사라지게 되면 대중들의 신행생활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불교 의례 및 의례 문헌의 성립 배경을 이해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학술콜로키움의 의미를 전했다. 031-585-3855

임은호 기자

불교평론 여름호…음식 관한 불교 가르침

김희옥 전 총장 회고담
'님의 침묵' 다시 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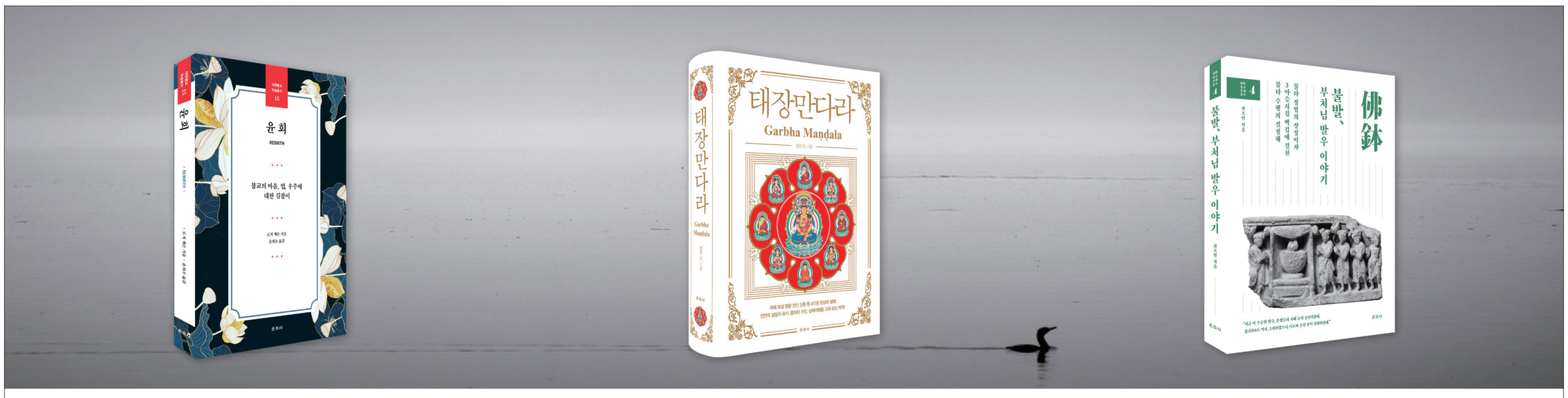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24년 여름호(통권 98호)를 발간했다. 2024년 여름호 특집의 주제는 '음식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기고문 △율장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가르침(한수진) △공양 의례에 담긴 음식의 의미(민순의) △발우공양에 담긴 뜻(구미래) △남방 상좌부 불교 음식문화의 특징(보하 스님) △한국 사찰음식의 영양학적 고찰(이재심)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과제(법송 스님) 등을 통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한국의 사찰음식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과제'에서는 사찰음식이 한국불교가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자로서 공양할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찰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논단에서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의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가 독자를 찾아간다.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두 바퀴로 움직이는 수레라고 파악하며 지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비의 실천윤리가 바로 인류 갈등의 해결 덕목이라고 말한다. 방영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복지적 역할 증대와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하화중생 상구보리로 변하고 있을 만큼 현대 사회에서 자비행이 전법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일본 불자들의 주체적 인식과 활동을 소개한 기타지마 기신 스님의 글도 눈여겨볼 만하다. 각계 명사들의 신행 생활과 불교관을 살펴보는 '나의 삶 나의 불교'는 평생동안 나름의 선 수행 일과를 지키며 공직에 헌신해 온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의 회고담을 실었다. 검사, 법무부 차관, 동국대 총장, 한국농구협회 총재 등을 지내는 동안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체화(體化)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올곧은 신행 자세는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은호 기자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